

토론을 통해 법에 대한 생각을 넓히다

- 법제처,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토론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다른 주제(▲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어린이 SNS 사용 ▲영상플랫폼 시청시간 제한 ▲온라인 수업 확대 ▲AI를 활용한 숙제 허용)가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법제관들은 토론을 희망하는 주제의 일자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

첫날 토론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제19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후 첫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다른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활동하며, 이날 개최된 토론마당 외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어린이 참여심사, 법안 만들기,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 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4~6학년 초등학생

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하여 법안 만들기, 어린이 참여심사,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주무관	임동혁	(044-200-6520)